

아트센터,
도시의
브랜드가 된다

소문난 공연장을 찾아서
-국내편
(10)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은 국내 대형공연장으로는 유일하게 7000여석의 야외공연장을 갖추고 있다. 마치 고대 로마시대의 원형극장을 방불케 하는 야외공연장에서는 매년 전주 세계소리축제, 록페스티벌, 야외음악회 등이 펼쳐진다. <소리의 전당 제곱>

7000석 노천극장, 로마 원형극장도 안부럽다



소리의 전당 대극장인 모악당 전경.



지난 2003년 창단된 유스오케스트라의 '영화콘서트'.

전주시 덕진구 외곽에 위치한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대표 이인권·이하 소리의 전당)은 국내 유명 공연장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있다. 다른 어떤 야외공연장 때문이다. 최근 음악, 무용, 연극 등 순수공연예술분야의 야외공연이 활기를 띠면서 많은 공연장들이 '열린 무대'를 희망하지만 막대한 부지와 예산이 들어가는 탓에 선택 입지를 내지 못하고 있다. 10년 전부터 야외공연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예술의 전당도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개관때부터 7000여 석의 야외공연장을 거느린 소리의 전당은 '축복'받은 셈이다. 전주시의 브랜드가 된 '전주세계소리축제', 유명 록페스티벌, 여름콘서트 등이 야외공연장의 '단골 손님'들이다.

일명 노천극장으로 불리는 야외공연장은 소리의 전당의 성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소리의 전당은 지난 2001년 9월 '전북도민의 문화전당'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부지 3만 187평, 연건평 1만 932평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개관했다. 공연장 규모로는 서울 예술의 전당에 이어 두번째다.

올해로 개관 10주년을 맞았지만 소리의 전당의 태동은 그 이전부터 시작됐다. 1994년 예술계·학계·연론계 인사 13명은 '예향 전북'의 랜드마크가 될 공연장 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전북도와 전북대간 부지 교환을 계기로 속도가 불기 시작해 1998년 1월 첫삽을 떴다.

1200억 투입 '전주의 자랑' 명품 아트센터 건립
10년간 국제행사 다채... '문화의 전당' 입지 굳혀
예산 지원하되 운영은 위탁... 선진국형 문화정책

여기에는 당시 유종근 전북도지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도 한몫했다. 지방에서는 1200억원이라는 파격적인 예산을 투입, 대극장인 2138석의 모악당, 714석의 연지홀, 222석의 명인홀, 국제회의장, 전시장, 야외공연장, 놀이마당 등을 갖춘 명품 아트센터를 건립한 것이다.

소리의 전당은 규모 만큼이나 운영에서도 차별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전북도는 소리의 전당 개관에 앞서 국내 최초로 '민간위탁'이라는 혁신적인 카드를 꺼냈다. 전체 운영예산의 60~70%만 전북도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경영을 위임받은 민간시설이 책임지는 방식이다. 지원은 하되 경영에는 간섭하지 않는 선진국형 문화정책인 '팔걸이 원칙'이다. 대부분의 국내공연장이 시 산하 사업소나 독립법인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보면 당시로서는 매우 '무모한 도전'이었다.

하지만 저예산 고효율을 내건 민간위탁 시도는 통했다. 중앙공연문화재단(2001년~2002년)에 이어 지난 2003년부터 소리의 전당을 위탁받은

학교법인 예원예술대학교는 축적된 역량을 토대로 도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지난해 총 수입은 전북도의 보조금 36억원을 포함한 약 53억 원. 이 가운데 기획공연예산은 11억원으로, 절반인 5억원은 공공성 높은 프로그램개발에 투입한다.

공연장 가동률(지난해 기준) 역시 전국 평균 38.5% 보다 훨씬 높은 71.7%를 기록하고 있다. 개관 초기 10만 여명에 그쳤던 관람객도 40만 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도민 5명 중 한명꼴로 소리의 전당을 찾았다는 얘기다. 이같은 성과 덕분에 소리의 전당은 전북도의 경영 평가(2010년)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뒤편이더라도 지난 10년간 소리의 전당이 일구어낸 결실 가운데 가장 큰 수확은 '문화의 전당'으로 입지를 다졌다는 점이다. 조수미 콘서트 공연, 뮤지컬 '맘마미아', '사운드 오브 뮤직' 등 유명 공연은 물론 시민참여형 축제 '토요놀이마당', 신진음악인의 등용문 '솔리스트 시리즈', 유

스오케스트라 창단,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 제작 등이 좋은 예다. 이 가운데 지역의 청소년 음악가를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창단된 유스오케스트라는 전북의 유일한 청소년 교향악단. 매년 해외아티스트가 이끄는 마스터클래스와 외국 청소년 오케스트라와의 교류 등을 통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특히 올해 10주년을 기념해 기획한 푸짐한 레퍼토리는 전북 도민 뿐 아니라 전국의 공연애호가들의 발길을 끌어들이고 있다. '신년음악회 폴 포츠& 이사벨 희망콘서트', '리처드 용재 오닐과 뷔르템베르크 챔버오케스트라 협연', 뮤지컬 '몬테크리스토', 프랑스 안무가 카롤린 갈송의 '블루레이디', '내셔널 지오그래픽전', '아프리카 싱크로나이즈'전 등은 큰 반응을 얻었다.

소리의 전당 이찬 예술사업부장은 "지난 10년이 국내 최고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10년은 글로벌 시대의 문화메카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문화의 체질화, 예술의 일상화'를 모토로 다문화 시대에 걸맞은 고품격 프로그램과 공연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전주=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kwangju.co.kr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으로 작성됐습니다.

새로운 개념의 MY-MO 심는가발 마이모

호사가발 세일 39만원

특수가발 대여!!

- 수영, 사우나, 스포츠, 취침시 완전해결
- 100% 인모사용 및 형상기억 모발
- 영화 기법을 이용한 Front NET souk 제품출시
- 타사 수선, 교정관리

"내 머리 같은 자연스러운" 내 나이를 찾으세요

KBS **웃찾사** **세상의 아침** SBS **웃찾사** MBC **세상따라** 전국방영

NEW 신제품 0.02mm 마이크로 가발

경력 20년 노하우 062-224-2738 010-4809-2738

우리은행 현대극장 금호종합금융 마이모 (남산빌딩 409호)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방수제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 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 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 를 취하는 견적이나 덤핑견적은 받지 않습니다.

광주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전남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본사 : (02) 454-7722